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2016.7.3.(다해) 제2005호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ubo.or.kr>



성김대건성당 감실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마태 10,18)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고귀한 첫 번째 사제가 순결한 피를 흘린 한국 교회는, 순교 신앙을 이어 오며 이 땅에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온갖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다 가신 신앙 선조들의 후손답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합니다.

제1독서 2역대 24,18-22 **제2독서** 로마 5,1-5 **복음** 마태 10,17-22.

입당송 이 성인은 하느님의 법을 위해 죽기까지 싸웠으며, 악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않았네.
그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네.

화답송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답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매사를 시작하고 마칠 때 십자성호를 제대로 긋겠습니다.”



내 어릴 적 꿈

여영환 오토 신부 | 한티순교성지 담당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어린 시절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린 시절의 마을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됩니다. 그때 가족들의 모습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 어르신들과 친구들 얼굴도 하나 들썩 떠오릅니다. 그때 키웠던 많은 꿈들도 떠오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을을 떠나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왔던가?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의 꿈을 이룬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린 시절 그 마을이 더 생각나고 그곳으로 한 번쯤 돌아가고 싶은 것은 왜 일까요?

골매마실을 간 적이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 열다섯 나이에 신학생으로 선발될 당시 가족들이 함께 살던 경기도 용인의 산골입니다. 사제가 되어 이 마을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고난의 세월 동안 신부님은 이 마을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꿈속에서 수없이 나타났던 마을이 아니겠습니까? 그사이 체포되어 순교하신 아버지 김제준 이나시오, 포졸을 피해 이곳저곳 떠도신 어머니 고우르술라, 여동생과 막내 난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또 어머셨을까요? 유학생할 중에도 신부님은 건강이 좋지 않아 많이 아팠으니 오죽 가족 생각이 나셨을까요? 그토록 그리워하던 동네로 돌아와 어머니와 동생을 만났을 때의 심정은 또 어머셨을까요? 신부님의 귀향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금의환향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겨우 반년 남짓, 1846년 4월. 그곳 은이공소에서 교우들과 함께 드린 부활절 미사가 마지막으로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신부님께서서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 순종하며 유학길을 떠나 갖은 고생을 다하셨습니다. 신학생과 신부가 되어서는 주교님께 순종하여 선교사들이 다닐 길을 준비하고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셨지요. 그는 가라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갔고, 돌아오라 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돌아오는 순종의 종이였음을. 그 많은 지식을 가졌음에도 붙잡힌 후 모진 고문과 회유에도 꿈쩍하지 않고 천주님 품에 안기신 충직한 종이였음을.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 세상 것을 탐하지 않고 하늘의 것 하나만을 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매번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현존을 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고 듣고 만나게 될 때 누구나 주님께 대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 어릴 적 꿈을 추슬러야겠습니다. **필문**

교회문화 산책

성 프란치스코 ‘피조물의 찬가’와 마크 로스코

백미혜 크리스티나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형제인 바람과 공기로, 흐리거나 맑은 온갖 날씨로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피조물들을 길러주시나이다.”... (성 프란치스코 ‘피조물의 찬가’ 중)



무제 / 캔버스에 유화 / 266.5cm *258.8cm / 1959

며칠 전 한 화가에게서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을 그리려 곧 아시시로 떠난다는 거였어요. “성 프란치스코라구요? 그분 초상화를 아시시의 성당으로부터 의뢰받았습니까?” 나는 놀랍다는 투로 물었습니다. 그는 가톨릭 신자도 아니었거든요.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좋아서, 그를 그리려고 그 현장에 그냥 가는 겁니다. 느낌이 올 때까지 난 그곳에서 혼자 밥해 먹으며 지내려고요. 그 시간 동안 습작한 그림들은 모두 그분처럼 나누어 주면서요.”

평소에 내가 기억하고 있던 그는 내면을 응축한 단순한 먹선으로 바람, 비, 나비, 새, 아이, 동굴 같은 자연물을 즐겨 그리던 화가입니

다. 그런데 최근 전시회에 옛 현자들의 얼굴을 독특한 질감과 웅장한 스케일로 그린 작품들이 출품되었더군요. 그는 최근 중국 미술 비평가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나날이 그림값이 치솟고 있는 몇 안 되는 한국 화가인데... 그런 그가 불현듯 가난을 구하며, 거리의 빈자 성 프란치스코를 사숙하러 붓 한 자루만 들고 아시시로 간다는군요! 예술 작품이 자본시장의 상품 가치로 전락한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자숙과 반성의 기미가 느껴지는 한 화가의 구도자적 태도를 본 그 날 하루는 참 마음이 가볍고 기뻛습니다. 우리 눈이 잘 분간해내지 못할 뿐이지 세상에는 이런 예술가들이 많이 살고 있기에 예술혼이 세속을 넘어 그 불멸의 맥을 잃지 않는 것일 테지요.

마크 로스코 또한 이런 초월성을 품은 위대한 화가입니다. 1950년대 후반 미국 자본주의와 앤디 워홀로 대변되는 팝아트의 거대한 물결을 거스르며 우뚝 서있는 그의 작품들은 한 폭의 경건한 성화입니다. 뉴욕 포시즌호텔 식당의 벽화 사건은 로스코의 작업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로스코가 뒤늦게 그림이 걸리게 될 식당의 호화로움과 값비싼 식비를 알게 되자 곧장 그림값을 돌려보내고 계약을 파기해 버렸거든요. “그런 큰돈을 한 끼의 식사비로 아무렇지도 않게 지불하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내 그림을 허락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이번 도판에 소개하는 그림은 포시즌 호텔이 아닌 영국 데이트 모던 갤러리의 일급 소장품이 되었으니, 혹 신자들께서 런던을 여행하면 꼭 찾아가보셨으면 합니다. **필문**

재활원 어린이들의 생명 봉헌과 절대적 순종

손상오 루카 신부 | 원로 사제

세상에는 자기 탓이나 잘못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 중에는 특히 어린 아이들이 당하는 고통이 그러하다고 본다. 오래전에 부산의 모 어린이 재활원에서 두 달 가량 지낸 적이 있었다. 그전에도 몇 번 들린 적은 있었지만 그때와는 달리 어린 아기들과 자주 만나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가 있었다. 한마디로 죄 없는 어린이들의 삶은 완전히 봉헌된 삶이었다. 생명 봉헌의 삶이었고 절대적 순종의 삶이었다. 그 어린이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았다. 자기를 낳은 부모를 포함한 죄인들의 죄, 아니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하는 봉헌된 삶으로 보였다.

뇌수종으로 커다란 머리를 눌린 채 돌아눕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죽어가는 아기들.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늘어뜨리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목시록의 “죽임당한 어린양”을 상기시키는 아기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내가 제일 정을 많이 붙인 조금 큰 아기들이 있었다. 정신은 멀쩡하지만 뇌성마비로 몸도 머리도 말을 듣지 않아(죄송한 표현이지만) 꿈틀거리는 미물처럼 움직이는 여덟 명의 아기들이 그들이었다. 무엇이라도 붙잡고 걸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아기들도 있었고, 제법 말을 하고 생각도 잘 돌아가는 아기들도 있었다. 그중에 뼈가 약해 서지도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만 하는 한 아기는 보통 열 살 또래 아이만큼 지능은 있어 대화도 잘 되었지만, 걸핏하면 뼈가 부러져 병원 신세를 져야 해서 안아주지도 못하고...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가여운 아기였다.

어른들의 죄, 인간의 죄,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사랑과 정에 목말라 우는 이 아기들의 삶은 애처로운 봉헌의 삶이었다. 표현할 줄 아는 것은 웃음과 울음 뿐. 안아달라고 조르는 것이 고작이다. 애정을 갈구하는 그들 모습이 한없이 안쓰러웠다. 악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아기들이건만... 벌써 고집과 욕심을 나타내는 몇몇 아기들이 있었지만 단순한 본능적 욕구일 뿐.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모습은 애처롭고,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따름이었다. 목시록에 나오는 “죽임당한 어린 양”들로 가득찬 한 아기 방은 감히 접근하기조차 두려웠다. 슬픔과 기쁨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무표정한 그들 모습은 완전히 봉헌된 삶의 모습이었다. 아기들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봉헌”과 “순종”의 신비를 엿보는 듯하였다.

그들에게는 자기의 의사나 의지가 없다. 원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니며, 다른 삶의 목적도 희망도 없다. 마치 하느님께서 오로지 속죄양으로 봉헌하기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진 인생인 듯, 그들은 묵묵히 고통 중에 순종하며 봉헌의 삶을 살고 있었다. 너무 고통스러워 우는 것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아기들에게서 결코 분노를 볼 수는 없었다. 철이 좀 들고 의사 표시를 할 줄 아는 몇몇 아이들을 빼고 나면, 아기들은 슬픔과 기쁨의 표현이 아예 없었다. 깔깔대는 웃음도 없고 몇몇 아기는 그저 빙긋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리고 울 뿐이었다.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그토록 싫어하는 내가, 그들의 울음소리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신기할 뿐이었다.

“주님 그들에게 사랑과 평화를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소서, 아멘.” **꺄꺄**

열두 사도 이야기

“보라,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요한 1,47)

진실된 주님의 제자, 바르톨로메오 사도

바르톨로메오 사도는 공관복음과 사도행전 (1,13)에서 사도들의 명단에 등장하는 것 외에는 성경에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바르톨로메오라는 이름 대신 나타나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필립보 사도가 예수님께 소개한 나타나엘(요한 1,45)을 바르톨로메오 사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바르톨로메오라는 이름은 없고 나타나엘이란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같은 분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말로 ‘바르’는 아들을 뜻합니다. 즉 바르톨로메오는 ‘톨로메오의 아들’이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래 이름이 나타나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타나엘은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 하느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성인께서는 갈릴래아 카나 출신(요한 21,2)으로 예수님께서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요한 1,47)라고 하실 정도로 깨끗한 인물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뵈고는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요한 1,49)라고 신앙을 고백하시며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성령 강림 후 사도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 성인께서는 메소포타미아와 이란을 거쳐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노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활동하다가 순교하셨다고 전해지는데 살아있는 채로 살가죽을 벗겨내는 고문을 당하시고 참수되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시스틴성당 천장에 그린 ‘최

후의 심판’에서 심판관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르톨로메오 사도가 자신의 살가죽을 두 팔로 봉헌하는 모습을 그려 넣기도 했습니다.

성인의 유해는 처음에는 순교지에 매장되었다가 여러 경로를 거쳐 최종적으로 로마로 모셔져 왔습니다. 테베레 강 가운데 있는 티베리나 섬에 성당을 건축해 모셨는데 오늘날의 성 바르톨로메오 성당입니다. 또한 두개골 일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성당에 모셔졌고 신성로마제국 황제는 이곳에서 대관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8월 24일을 축일로 지내는데 성인의 상징물은 칼과 벗겨진 살가죽이며 미장공과 세공인의 수호성인이십니다.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에 등장하는 바르톨로메오 사도

교구 행사

■ 계산주교좌성당 견진성사



6월 26일(일) 오후 2시 주교좌 계산성당에서 108명의 신자들이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의 주례로 견진성사를 받았다.

■ 故 옥잉애 여사 장례미사



사진제공 : 월간 <빛>

아동복지사업에 헌신한 사도직협조자 옥잉애 여사의 장례미사가 6월 27일(월) 오전 9시 복자성당에서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장신호 요한보스코 보좌주교 서품식

2016년 7월 12일(화) 오후 2시
주교좌 범어대성당

- 당일 교통 혼잡이 예상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장권을 배부받은 분들은 지정된 구역(색상)을 찾아 입장하시면 됩니다.
- 입장권이 없는 분들은 1층 프란치스코성당과 드망즈홀에서 미사를 참례할 수 있습니다.

■ 답게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



「답게 살겠습니다」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평신도들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시작된 신앙실천운동입니다. 한 주간동안 교구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사항을 7월 3일부터 「대구주보」 1면에 하단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자녀이자 신앙인답게, 각자의 가정, 교회, 직장 등에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실천하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에 적극 동참합니다.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발달 장애아와 가족을 위한 월미사	7월 3일(일) 16:00 성도마스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7월 4일(월) 11:00 죽도성당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7월 4일(월) 10:30 범어대성전 소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7월 4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4일(월) 11:00 성동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7월 6일(수) 11:30 계산성당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7월 4일(월) 11:00 계산성당	-	-

성소 | 피정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매월 셋째주(토) 14:00

장소: 서울 개화동 수도원

문의: (010)3800-1579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7.10(일) 14:00

장소: 가톨릭 근로자 회관 경당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여성

문의: (010)5033-9302

<http://www.columban.to>

베네딕도영성관 성경 통독 피정

신약(복음서): 7.28(목)~31(일)

신약(서간편): 8.18(목)~21(일)

피정비: 각 15만원

문의: 313-3425 / (010)7103-3425

29차 신구약성경 통독 피정

기간: 7.30(토)~8.7(일)

장소: 루하피정센터(오순절평화의수녀회)

문의: (010)3758-3572 / 홈페이지 참조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10명)

산내 치유 피정: 7.19(화)~20(수)

시니어 피정: 7.26(화)~27(수)

장소: 효령 하늘집 / (054)382-0091

대학생(2차 8,28) / 문의: 593-1273

제주 성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 한라산, 미사, 기도, 강의

기간: 7.19~22 / 7.25~28 / 8.1~3

8.5~8 / 8.10~12 / 8.14~16

대상: 개인 가족, 본당단체 등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교육 | 모집 | 기타

요양원 입주어르신 모집

입주자격: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위치: 북구 사수동 베네딕도수녀원 뒤

문의: 파티마홈, 324-1188

열린 책 포럼 _평정심을 잡아라

일시: 7.8(금) 19:30~21:00

장소: 동성로 바오로딸서원

대상: 책을 사랑하는 모든 이

준비물: '놓아두며 살기' 책을 읽고 지참

문의: 425-5185

27차 대구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모집: 청소년영어캠프, 부모동반연수,

대학생 영어연수·해외봉사

지역: 필리핀 바콜로드 대학부설센터

출발: 청소년·가족(1차 7.19 2차 7.23)

5차원전면학습코칭리더십 특별과정

기간: 4차 8.1(월)~3(수)

장소: 구미선산청소년수련관

대상: 초·중·고·대학생(선착순 30명)

참가비: 28만원 / 다음카페: 우아칭 참조

문의: (010)3883-7004

제48차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초등: 7.22(금)~8.11(목)

중·고등: 7.21(목)~8.11(목)

세계 학생들과 함께 연수

안전과 다양한 경험 제공

문의: 그린피시아엔티, (02)3446-4253

자율형사립고 대건고 2017 입학설명회

인성 등업, 학력 등업, 대건 등업

1차: 7.16(토) 14:00, 대건고 안드레아관

2차: 10.15(토) 14:00, 대건고 안드레아관

문의: 입학홍보실, 235-4560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9월 정규 입학 모집

기간: 단기, 장기 / 대상: 초4~중3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문의: (02)2258-8983

www.oakinternational.co.kr

일본성지순례
우쿠오카, 히라도, 나가사키 (3박 4일)
※ 출발일: 10월 26일, 11월 23일
T. (053)253-3399
조 힐 레(유스티노) 흠 미 회(안젤라)

U&I 유앤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일 방향 500m)
제임병원 옆
김경임 (아네스)

치질수술경통하는 병원
내시 건강검진
대형주차장 완비 / 여성전용입원실
www.hangmuns.com
노성균 신검통 959-7175
의사재 아우구스티노 대우파티탈

목조건원주택 분양/시공
21C 주택산업
이정수 마티아
경산조폐공사정문 앞
(053)817-0322 | 010-2624-0322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신홍식(루가)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개원 30주년
달성피부과
BF PNT영양치료실/화상, 흉터크리닉
1F 아토피센터/대상포진통증클리닉
2F 오프오피스킨케어/여드름클리닉
3F 레이저/보톡스/리프팅 동안센터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7호광장 듀유크 2번출구 ☎ 566-4333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
010-8345-9479
위령회장 이주석 요배

행사 | 모임

예비신학교 하계 사제 성소 피정

중1~중2: 8.1(월)~3(수), 청통수련원
 중3~고2: 8.3(수)~5(금), 청통수련원
 고3·대학·일반: 7.19(화)~21(목), 한티
 참가자격: 예비신학교 등록생
 신청: 각 본당 사무실 / 마감: 7.10(일)

박영봉(안드레아) 신부 야생화사진 초대전

기간: 7.6(수)~19(화),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CU갤러리(매일빌딩 1층)
 목적: 사제서품 25주년 기념 및
 성격성당 교육관건립기금 마련
 문의: 성격성당, 943-9030

교육 | 모집

소람 상담사목교육 2학기 모집

개강: 9.1(목)
 내용: 자기이해 과정(상담심리학, 가족관계학) / 신청비: 각 5만원
 문의: 교구 소람상담소, 250-3100

대구대교구본당사회복지협의회

25주년 _숨은 공로자 찾기
 대상: 본당 사회복지활동을 오랜기간
 드러나지 않게 활동해 오신 분
 신청: 각 대리구 사회복지회
 마감: 7.31(일) / 문의: 253-9991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여름진학캠프

기간: 7.26(화)~28(목) 2박 3일

대상: 본교에 관심있는 초6~중2
 문의: (054)338-0530
<http://sanjayeon.school.gyo6.net>

대구평화방송 개국20주년 기념

모나코 왕실 소년합창단 초청음악회
 일시: 7.13(수) 20:00, 3만원 / 2만원
 장소: 대구콘서트하우스(구. 시민회관)
 예매: 티켓링크, 지원클래식 656-4732
 문의: 대구평화방송, 251-2610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마리아폴리 초대

기간: 7.22(금)~25(월)
 장소: 코모도가족호텔(경주보문단지)
 신청: 홈페이지참조 www.focolare.or.kr

가톨릭신자를 위한 스페인어 초급반 모집

가톨릭근로자회관에서는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천연비누·화장품, 동화구연·시낭송지도자,
 우쿨렐레, 바이올린, 성가반주법, 오카리나,
 플룻, 텃생·유화·수채화, 성인생활영어
 회화, 통기타 / 문의: 476-6211(교대역)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일자: 8.16(화), 성모님발현지
 경비: 415만원(11박 12일)
 일자: 9.1(목), 이스라엘, 이태리
 경비: 435만원(11박 12일)
 문의: (02)2281-9070 / www.cttour.org

2016 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접수기간: 6.29(수)~7.6(수)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3(일반)
 850-3505(교육) / 660-5512~3(특수)

장례지도사 무시험국가자격 교육생 모집

야간반(30명): (토) 13:00~19:20
 (일) 13:00~21:20 (월, 수) 18:30~22:20
 개강: 9.3(토) / 대상: 20세 이상
 학력, 남녀 제한 없음
 문의: 대가대장례교육원, 555-4404

가톨릭세실리아성음악협회 여름 연수

기간: 7.25(월)~28(목), 가톨릭대성심교정
 주제: 시간전례·미사전례성가
 교수: 박원주·최호영 신부 외 15명
 내용: 그레고리오성가, 오르간, 지휘, 성악, 작곡, CCM / 신청: (010)4513-7605

채용 | 안내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천주교대구대교구에서 출자하고
 매일신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일상조에서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427-440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6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발아플랜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지간신경증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델리아)
 대구은행역 1번 출구
 국민은행 ● 대구은행 본점
 코리아 알트만 (4F)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KCC 인테리어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밝은눈안과
 원장/전문 의 임흥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등대꽃
 건강밥상
 자연한정식
 지하철 2호선 내당역 3번 출구
 예약 053)652-5432
 이태도 가브리엘, 윤영이 카타리나

라인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 원장 원종훈 (바오로)
 피부질환 | 아토피 | 알레르기 | 시아귀 | 티눈 | 건선 | 무좀
 피부미용 | 여드름 | 흉터 | 기미 | 잡티 | 모공 | 보톡스 | 필러 | 비만
 대령동 한영유니온빌딩 3층 (구.달성성당)
 1호선 삼성역역 3번출구 T.053) 651-8800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장효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주)한투어
성지순례전문
 한투어
 성모발현지(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발칸 성지순례 모객 중
 ☎ 053-427-7090
 안요한, 김마리아막달레나
<http://www.hantourcatholic.com>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호성(야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영수(다미아노)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성당자리